

“개미군단이어, 일어나라”



▲ 김진홍 목사와 심종석 교수 ⓒ 송경호 기자

평신도, 목회자에게 길을 묻다

두레공동체대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편

뉴라이트(NEW - RIGHT)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대안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홍 목사가 참여하는 '한국기독교개혁운동(가칭, 이하 한기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는 교계의 뉴라이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도급 목회자들과 두레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심종석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21세기 초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주

대담자 : 심 종 석 교수 (남서울대학교)

■ 김 진 홍 목사 약력

1941년 경북 청송에서 출생했고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청계천 활빈교회, 경기도 남양만 활빈교회의 시무를 거쳐, 경기도 남양만에 두레마을을 설립했다. 두레공동체운동본부(D.C.M)대표이며 계명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양심적 목회자로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외 약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구리시 소재 두레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다.

■ 심 종 석 교수 약력

196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희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4대째 모태신앙을 계수하고 있고 현재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직중 이다. 평신도의 시각에서 신앙서로서 「구약성

서의 이해」를 출간하여 교계에 참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전공분야에서 각각 10 여권의 저서 및 논문을 발표했다.

▲심중석=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답 내용이 신앙인은 물론 기독교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계층 간 갈등상황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교파적 기독교 단체, 소위‘한국기독교개혁운동’이라는 단체를 발족시킬 예정이십니다. 우선 ‘한기운’이라고 약칭되는 이 단체의 설립배경과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 지금 한기운을 발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었고, 1980년대에는 공동체 운동, 농촌 운동에 두루 관여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자신감이 흔들렸는데 선진국은 커녕 남미나 필리핀처럼 한때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들이 주저앉게 되었던 사례를 지켜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 밟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인 지도력이 흔들리고,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흔들리게 되면서 사회가 분열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하며 통합적 사회가 아닌 분열적 사회가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종교, 기독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난 120년 동안 많은 공로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매스컴과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120년 개신교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 부흥해 왔는데 최근 4-5년 들어서 교세가 축소되고 있다는 현 실을 접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한사람으로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역사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뉘우치고 자세를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성직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흔히 말하는 보수 수구쪽으로 물리면서, 또 일부는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양극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바른 가치관, 바른 교회관을 밑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진면목을 회복하고 교인들은 물론 국민적 신뢰를 받는 기독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통감하는 목회자 50-60명이‘우리가 한국 교회의 쇄신과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양쪽 측면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연대와 목회자들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일으키자’라며 4-5개월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비로소 최근에 ‘한국 기독교 개혁운동’이라는 기구를 발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심= (창립배경에 비추어) 한기운은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건전한 중도의 목소리로 통합하겠다는 점에서 아직 발족 전임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계 자정 노력에 대한 한기운의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후자의 시각에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한기운의 핵심 구성원은 건전한 목회를 하고 있는 40-50대 전후 연령의 건전한 목회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받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차적인 목표를 자체 정화, 목회자들의 기도운동, 교회 회개운동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권운동, 사회운동 성격이 아닌 ‘교회가 교회답게 바른 목회를 하자, 교회 자체가 새로워져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니 만큼, 외부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기도로써 지켜봐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운동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수백교회가 참여하는 운동이다 보니 보도가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도 지나친 비판도 너무 조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개혁의 주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과나 기존 운동단체가 아닌 성실하게 묵회하고 있는 현장 목회자들의 연대와 교회 연대이니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마스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보다는 자체정화와 영성회복 중심의 운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의 운동과는 성향이 전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기운의 사업을 소개해 주시지요.

▲김= 네가지의 사업 내용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여하는 교회의 연대, 목회자 연대 운동으로써 한기운 운동이 교회자체정화와 영성운동, 기도운동 즉, 교회 자체 쇠신 운동입니다.

둘째는 청소년, 청년 가치관 교육입니다. 교회가 청소년층과 청년층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국가관, 역사관, 경제관을 바로 심어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금성 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문제됐던 일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이다, 자유민주주의적이다.’라고 말하기 이 전에 ‘과연 기독교가 확신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바른 교과서는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역사학자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직화하고 역사교과서를 집필케 함으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기운에 참여하는 각 교회들이 성금을 모아서 연구비를 줌으로 올바른 교과서를 출간해 보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시민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입니다. 기독교의 봉사활동은 당연한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요즘은 NGO라고 부르지요. 기존 NGO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봉사정신을 시민사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운동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운은 NGO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시각에서 간접적으로 NGO 운동을 과감히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

네번째는 크리스천 리더쉽 육성 사업입니다. 바람직한 리더쉽의 결여에서 오는 사회적인 혼란 상태를 겪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와 신학자는 많이 양성했지만 성경적 가치관에 확고하게 서있는 국민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데는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고 크리스천리더십을 훈련 육성시키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 쇠신에 중점을 두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자는 이 운동이 특별한 것은 대교회 중심, 저명인사 중심이 아니고 현장에서 개척자, 목회자로서 말없이 봉사하고 일선목회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저변이 확대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동안에 교회의 지도력이 대교회와 대교단 중심이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인적, 물적 기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민적 호응이나 교회쇄신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기운은 개미군단이라는 말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곧 유명인사도 아니고 대교회가 아니더라도 발바닥으로 교인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으며 묵회하고 있는 일선 목회자들 중심으로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심=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은 갈수록 뒤떨어져 가는 듯 생각됩니다.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곧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처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제가 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한국교회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적,

신학적인 수준이 안 되는 미흡 한 신학교의 난립으로 인해 오는 피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영성과 지도력, 지적 능력이 부족한 목회자가 대량 배출되어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개신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울러 그 와중에서도 30-40대의 아주 우수한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됐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입니다.

이번 한기운 운동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투명성이 있고 기본이 되는 목회자들의 모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개신교 의 나갈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목회자들이 하나 의 장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한기운의 장래가 무척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번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단체들에 대한 선입 견 때문에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모임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운동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운동, 교단운동, 사회운동이 아니고 교파를 넘어선 진실한 운동이며, 신뢰받는 목회자들의 교회 자체에서 자금이나 이론이나 신학적 기반이 다 나오니 자생력이 강하겠지요. 요즘 혼란에 빠져 있는 청년들의 가치관운동, NGO운동 장기적인 교계와 사회의 리더쉽 육성 운동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장기적이면서도 현실 감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추상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 목회자의 문제점, 평신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소외지대 사각지대가 갈수록 그 층이 두텁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말씀하신 한기운의 정체성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 요즘 성매매 방지법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 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정화하는 운동이 초기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 자체 내의 관리 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묶여 있었던 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는 많이 변하고 민주화도 진척됐지만 교회 자체내의 분쟁조차 극복을 못하고 있었고 정서적인 공백 과 가치관의 혼란, 교육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사회적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기독교적 대안을 우리가 제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기운은 좀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연구결과도 받아보며 언론 매체를 통해 연구결과자료를 사회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기독교계 안에 신학자, 사회학자, 인문학자, 경제학자 등 골고루 좋은 인재들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 앞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70년대 80년대의 곡절 많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가장 기뻐했던 일과 후회되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30세에 청계천 빈민선교를 했고, 40대에 농촌 개척 선교, 50대에는 두레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지는 운동들을 했고, 지금은 구리에서 두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두레마을 공동체가 지리산에서 세워져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34 년이 넘는 과정 속에서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요,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좀 더 신학적, 지적인 공부를 많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너무 실천가, 운동가로서 뛰다 보니 요즘에 와서는 스스로가 무식하다고 느낍니다. 둘째는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적었는데 본의 아니게 희생을 강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목사님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김= 일반 사회 미디어에 비해 기독교 미디어가 너무 영세성이 있고 취약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디어 정보 홍수 시대에서 교회가 진작 투자하지 못해 그 분야에서 뒤져 있는 것에 대해 교회 전체의 큰 손실이고, 선교 전략상에서도 차질이 되니 이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각 매체가 개별적이지 않고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미디어가 돼야 한다고 보고, 우리 교계가 그 미디어들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고 전문가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재정지원도 아끼지 말고, 초기엔 미숙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키워줘야 합니다. 교회 율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제 구실을 하도록 뒷받침하며 대사회적 영향력 특히 시민사회운동 등을 주도할 수 있는 데까지 신속히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 끝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덧붙일 말씀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을 들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기독교는 정신세계를 감당하고 있는 만큼 교회가 자기 고백이 분명해야 하겠고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시대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반 국민 사회에 보여주려는 전시 효과가 아닌 내면의 진실하고 분명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젊은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치관 혼란이 심한데 성경에는 아주 분명한 민주주의, 열린사회, 인간에 대한 존중 등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해서 비로소 세상 이데올로기를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